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7호 현대불교 A21
2011년 10월 12일(음 9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문) 스님, 남에게 보시를 한다. 도와준다는 개념, 이것은 행동보다 말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그런 걸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 아주 영향 가치가 훌륭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이 자체는 내가 사랑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를 진화시켰고 형성시켜 왔습니다. 자기 주인공이, 그러니까 마음먹는 대로 자기를 리드해 갑니다. 발전시켜 가고, 또는 항상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들을 해 보세요. 똥이 급하면 똥 누리 가게 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자는 것도 대신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아무리 선지식들이,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 못난 자기만은 못할 겁니다. 바로 자기부터 자기네 집에 전화는 놓지 않고 서야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의 전화부터 놓으십시오. 내 마음속의 바로 내 마음의 주인부터 믿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게 참선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로 전화를 합니다. "스님, 이렇게 이렇게 그랬어요" 하고서 전화를 했을 때에 "알았어!" 합니다. 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하혈을 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하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알았어"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라는 건 제가 없어서 미국과 한국이 한 찰나의 길입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천백역화신으로 나투시면서, 보이지 않는 데 나투시면서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은 약사로 응해 주시고, 또는 어떠한 애고에 휘달리는 사람은 관세음으로서 응해 주시고,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부처로 응해 주시고, 정신이 맑지 못해서 두뇌가 모두 물러가 터지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아축으로 나투어 주시고, 미래의 모든 내 정신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미타로 나투어 주시고,

또는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가서 빌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지장으로 나눔을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일을 찰나찰나 응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체험해 보신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체험해 보신다면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의 50%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해 봤지만 자기한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력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 아예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남한테 발길에 차이고도 어쩔 수가 없이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무심의 도리라는 것은 묘하면서도 광대무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중용으로 굴리면서 한다고 그래서 바로 팔 수레공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의 핵심적인 그 자체 즉, 우선적으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문) 기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인입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서 집단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스님들의 모습을 시비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타율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수행자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진정으로 제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야 할까요?

답)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개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바로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과 생각



그림 · 최주현

없이 어떻게 개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이 지혜롭게,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집어먹어 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에서도 질서를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또 화목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서 집어삼키고 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통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커다랗든 좁쌀알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집어넣어도 좁쌀알이 적지 않습니까. 못나고 잘난 모습을 보거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언어어단입니다. 왜냐. 집이 작든 크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헤어질 수 없이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다 응해 달라는 대로 모습을 화해서 나투는데 그 활약하는 모습이, 그 나투어 전부 다르니 어떤 거를 꼭 집어서 '이거는 나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함이 여여해서 어떠한 모습을 집어서 '나' 라고 할 수 없는 한 개체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 집은 일체제 불의 마음이 들락날락해도 손색이 없는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들락거려도 손색이 없는 법이요, 다 돌이 아니게 들락거려도, 하나로 몽땅 다 들어온다 해도 작지 않은 그릇이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닻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깐 안 하고 이긴 하기 싫으니깐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긴 고우니까 당기고, 이렇게 해서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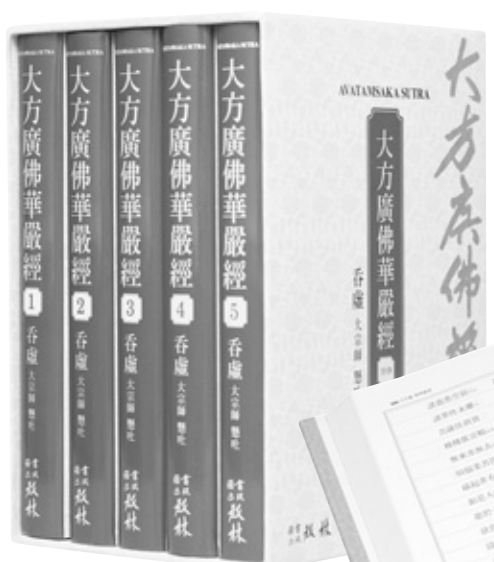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 와도 모든 스님네들이 다 나가서 울력으로써 해 들이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22면으로 계속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첩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집2도 인쇄

현불삼 02)2004-8215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운남지남동원선다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써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판매원 : 마 하 물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대출안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분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근본을 알아야 거기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21면에서 계속

거 없어요. 위에서는 '아휴, 저 사형들이 애를 쓰는데 나도...' 또 아우들은 '아휴, 저 사형들이 저렇게 애쓰는데 나도...' 이렇게 울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까.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발전 없이 그 창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을 켜고 앉았을 수가 없거나 그건 목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쾌활하게, 발전 있게 그냥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문 살다 보면 중심을 잘 잡고 가다가도 어떤 경우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 중심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의 근본 자리는 그런 약하다 힘 있다 이런 게 붙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다 그걸 붙을 수가 있나요? 이걸 그런 도리를 넘어서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붙지 않는답니다. 약해질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만남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약하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따로 자기가 그냥 돌이 돼서 약한 거 따로 있고 약하지 않은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다 넣고 한군데다 맡기고 한군데서 나오든 든다 하는 것을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살아오신 거 누가 살아오셨습니까? 자기가 살아오지 않았나요? 상대가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죠. 약하든 약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는 누구니까요? 자기 운전수죠? 그 운전수가 위로는 기를 넣고 아래로는 자기가 가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가 아닐까요? 기를 좀 조금 넣는 것도 거 기요, 많이 넣는 것도 거 기요, 가득 채운 것도 거 기요, 또 기를 없어서 못 넣는 것도 거 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수 알아서 할 탓이지요, 모두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엔든, 어떠한 일이 닥치든 오는 대로 무조건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고당당하게 살아 보세요.

어떠한 서적들을 제대로 읽으려면

문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뭐 철학이나 물리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전공 서적이든 다른 서적이든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거기서 하고 싶은 생각이 뭐냐 하고 거기에 사실은 제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저자의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가는 데는 방해가 됐으면 됐지 결코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서적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지금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모든 것이 방해가 됐으면 됐지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바로 그분이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분도 그분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거의 나는 바로 부(父)가 되고 끌려다니는 놈은 바로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 주인공, 거기에 모든 걸 놓는다면 전체 내면의 세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속에서 의식이 따라 줍니다.

또한 외부의 모든 것도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광력 전력 통신력 지력, 이 네 가지가 재료가 돼 가지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료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만 알면 모든 게 거기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든지 천문학이든지 천체물리학이든지 생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전부 정신의 의학이 아니면 지금 100%를 진행해

'아휴, 저건 사기꾼 같구나. 아이, 저런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서서 새벽에 마차가 그냥 수백 대가 지나가는데 술이 취해 가지곤 거기에 걸려 죽고, 또 한 사람은 친구하고 나왔는데 혼자 돌아갈 수 없어서 감을 건너서 탄 나라로 갔어요.

탄 나라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쪽 늘어서서, 그 나라 왕이 죽어서 왕을 뽑는데 그 왕이 탕던 말이 나와서 왕을 뽑더라고요. 금으로 잘 장식하고 그레 가지고서는 딱 말이 나오더니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헤치고선 그 말이 궁둥이를 그 사람한테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라에 불법을 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렇지, 실패를 해 보세요. 진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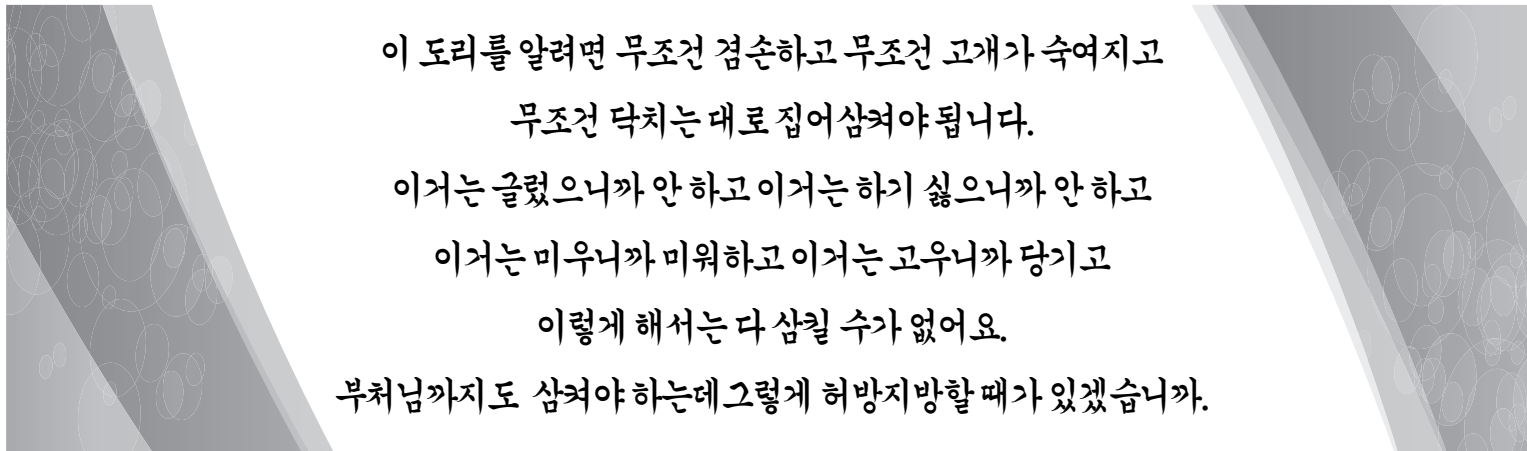
라도 자기가 버릴 건 버리고 들을 건 들어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책을 보는 것도 자신이 봤고, 틀리다고 하는 것도 자신이 틀리다고 하고, 또는 이익하다 또는 이게 옳다 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한마음 주인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어떤 게 자기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저 죽음을 죽이 풀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의식들이 그저 자기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안 낼 것도 괜히 성을 내고 불화를 일으키고, 또 욕을 안 할 것도 욕을 하게 되고, 남의 탓을 할 게 아닌데도 탓을 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자기라는 아집을 가지고 야상을 가지고, 내가 권세가 이렇게 공부할 열마를 했고 이런 아집 때문에, 또는 야상 때문에, 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끌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죽은 세상을 모르다면 산 세상을 어떻게 똑바로 이끌어 나갈까. 이 삼세를 한 찰나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도 공해서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예요.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가지셨죠? 아버지라는 이름도 갖고 오빠라는 이름도 갖고 사위라는 이름도 갖고 아들이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가지셨지만 여여하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나갑니까. 남편 노릇도 잘하죠, 또 아내 노릇도 잘하죠, 아들 노릇도 잘하죠, 사위 노릇도 잘하죠, 형제 노릇도 잘하지 않습니까? 금방 아내가 "여보!" 그러면 남편이 돼서 말과 뜻과 행이 아주 똑바로 자동적으로 그냥 남편이 돼 버리죠? 그래서 아내가 비켜나고 딸이 "아빠!" 한다면, 자동적으로 또 아버지가 돼서 여여하게 "아이구, 그래." 그리고 안아 주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여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봐도 그게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느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중심 삼아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닦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거는 고우니까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었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즉 말하자면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는 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수박으로 치면 몸통이는 바로 수박이고 그 씨는 수박안의 씨겠죠. 그런데 모두 여러분이 자기 깊은 내면세계의 씨는 안 보고 자기 수박이 어떻게 됐나 하고선 바깥에서 찾습니다. 수박씨를. 그런데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으면 찾아집니까? 벌써 그 수박씨는 심어져서 썩어 돼 가지고 수박이 달려서 익었는데 그 수박덩어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씨를 찾습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 하고 내면의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가다 문쳐 놓아야 합니다. 이 몸통이는 과거에 살던 모든 인과로 인해서 문쳐진 바로 고(苦)입니다. 악업 선업이 다 여기 몸통이 속에 10억이 넘는, 16억이 넘는 아니,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죠. 그 속에 또 있고 그 속에 또 있고, 그 의식은 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니 해 봤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이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두를 이 한 자가발전소에서 통하면 모든 자가발전소에서 서로, 내가 약하면 기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병이 나면 그 병난 데서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잘 못해서 잘못 생각을 하면 바로 파위를 일으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약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이 다 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간에 자기 마음 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탓이다 이겁니다.

옛날얘기 하나 할까요? 장사를 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휴, 저분은 참 이 세계적으로도 왕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가 나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누구 탄 사람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아무리 지식, 부부, 부모기간이다 할지라도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똥 똥 줄 사람도 없고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다섯 가진 대신 못해 준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영화배우처럼 한 찰나에 살면서 영화배우로서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지금 살다가 그 소임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 막이 내리게 아니라 이 몸만, 웃만 벗었지 다시 자기 차원에 의해서 참,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에 금으로 출현을 할는지 또는 무쇠로 출현을 할는지 그냥 출현을 할는지 강퍽으로 출현을 할는지 그건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우연히도 없고 또 공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그 일한 대가를 받고 공부도 자기가 한 것만큼 얼마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공부는 여러 책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그러더

Hanmaum Choir Festival

한마음 음악제

-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공연 내용 제 1부 (선비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류정필(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자)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문의 031-470-3100
- 후 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이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니
 내 마음 활짝 열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일체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되고
 서로 돕고 아끼고 돌 아끼게 함으로써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 분가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달항아리,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 너와 나, 남과 북,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작가 김익중